

전북 아·태 마스터스 D-4 입출국 불편 없앤다

김포 공항 등에 해외참가자 입출국 지원 안내데스크 운영
22일까지 입출국 158대 등 총 689대 무료수송버스 지원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외참가자 입출국 지원을 위한 안내데스크가 운영된다.

8일 아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에 따르면 조직위는 해외참가자들의 원활한 입출국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 1, 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안내데스크 및 출입국상황실을 운영한다.

입국심사, 세관, 검역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출입국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과 통역지원 자원봉사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참가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항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대화중합시스템 앱 설치 안내서 및 한국관광홍보물 배부, 수송차량 안내 등 해외참가자에게 대회 참가 정보를 제공한다.

대회참가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회 개최 2일 전인 10일부터 대회 종료 2일 후인 22일까지 총 689대의 무료 수송을 지원한다.

해외참가자 입출국 수송을 위해 총 158대의 버스를 지원한다. 입국 수송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69대를 운행하고, 출국 수송은 16일부터 22일까지 메인등록센터에서 공항까지 89대의 무료 수송버스를 운행한다.

14개 시·군의 숙소~경기장을 운행하는 수송버스 186대와 시군~시군 간 수송버스 96대, 시군~개·폐회식장 수송버스 89대 등 530대의 버스가 운

행한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송지원을 위해 공항과 메인등록센터, 시군 메인경기장에 수송통제반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수송 사각지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기장 인근 식당이 없는 경우 해외선수의 식당 수송을 자율방범대가 담당하게 해 참가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태조직위 이강오 사무총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꼼꼼히 준비했다. 참가자들이 이

등에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날 때까지 수송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국내 최초의 생활체육 국제 종합대회로,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25개 종목으로 전북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재훈기자



오현규 썬킥골, 셀틱 리그 조기 우승 확정

셀틱의 오현규(왼쪽)가 동료들과 함께 7일(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의 타인캐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34라운드 허츠 오브 미들로시언과의 경기를 승리로 마친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현규는 후반 35분 썬킥 골을 넣으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고 셀틱은 승점 95로 2위 레인저스와 13점 차이로 진여 경기와 상관 없이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문체부, 지자체 관리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제작·실태 점검

11월까지 매뉴얼 제작

정부가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과거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 시설을 일부 시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

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선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했다.

이에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폐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

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올해 11월까지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 방법 등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사용 시간, 사용자별 혹은 단체명 등

예약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 밖에 운영에 관련된 법적 기준, 시설 및 안전관리,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공공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이용 실태

점검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매뉴얼 보급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항저우AG에 출전합니다'

전북체육회 세팍타크로 박성경, 국가대표 선발

전북체육회 소속 세팍타크로 '에이스' 박성경(사진)이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공격수)가 공을 잘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경기 흐름을 잘 판단하는 장점이 있다.

박성경은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앞서 태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전북세팍타크로협회 윤순섭 회장은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북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길 희망한다"며 "전북세팍타크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 세팍타크로팀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뉴시스

내년 MLB 개막전, 국내서?

美 ESPN "LA 다저스·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치를 가능성"

한국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이 열릴 전망이다.

미국 ESPN은 8일 소식을 인용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024시즌 개막전을 한국에서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나머지 28개 팀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 적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일찍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도 설명했다.

MLB는 멕시코 몬테레이(1999년), 일본 도쿄(2000·2004·2008·2012·2019년), 호주 시드니(2014년) 등에서 개막전을 소화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MLB 경기가 열린 적이 없다. 지난해 개최하려던 MLB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도 국내 대행사 등 여러 문제 속에 무산됐다.

만약 내년 한국에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시즌 첫 경기를 한국에서 갖는다면 미국,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벌어지는 역대 8번째 MLB 개막전이 된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인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국내팬들에게도 친숙한 팀이다.

현재 샌디에이고에는 KBO리그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내야수 김하성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저스에는 과거 한국인 스타들이 몸담았다. 최초의 코리안 메이저리거 박찬호를 비롯해 서재응, 최희섭 등이

뛰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빅리그 입성 첫 해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다.

샌디에이고 지역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뷰에 따르면 김하성도 한국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반기고 있다.

김하성은 "우리 팀이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게 돼 영광이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야구팬들의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들은 야구를 사랑하고, 다저스도 사랑한다. 그들에게는 박찬호가 있고, 류현진도 있었다. 다저스를 정말 잘 알고 있다. 정말 멋지고 역사적인 경기가 될 것"이라고 보였다.

또 "샌디에이고의 팬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우리 팀에도 한국에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고 보고 싶어할 것"이라며 샌디에이고 팀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MLB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국제 이벤트 마련에도 뜻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부임한 허규원 KBO 총재는 미국 현지서 가진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와 회담에서 MLB의 한국 개막전 개최, KBO리그의 개막전 미국 현지 개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뉴시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